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1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3
IV. 국제신인도	23
V. 종합의견	25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²	G D P	6,785억 달러 (2017년)
인구	32.4백만 명 (2017년)	1인당 GDP	20,957달러 (2017년)
정치체제	군주제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제)	통화단위	Saudi Riyal (S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75 (달러 페그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5.6%에 달하는 2,665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4.5%에 해당하는 8.4조m³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니파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갖고 있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임.
-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바레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로까지 확산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유효정책의 시행으로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그러나 2015년 1월 즉위한 현 Salman 국왕이 형제 상속의 원칙을 깨고 2017년 6월 자신의 장남인 Muhammad bin Salman 왕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였고,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여러 명의 왕자들을 체포, 구금하면서 왕실 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 정치적 불안정이 우려됨.
- 또한 역내 속적인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코자 예멘 내전 개입에 이어 카타르 단교 사태 주도, 레바논 총리 사임 발표 개입 등 역내국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간섭을 확대하여 역내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감산에 따른 유가상승의 폭과 지속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은 0%대로 더욱 둔화된 것으로 추정
 -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의 지속이 원유수출액 감소와 그로 인한 투자 감소 등을 초래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3% 포인트 이상 하락한 1.8%에 그쳤음.
 - 원유수출에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수출액 감소는 재정수지 적자 가중, 상품수지 악화 및 그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사용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축과 그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건설 부문의 주요 대형 프로젝트 연기 또는 취소 등은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동반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옴.
 -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중은 2015년 34.2%에서 2016년 30.9%, 2017년 28.9%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유가 지속의 상황을 타파코자 2016년 11월 30일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향후 6개월 간의 감산에 합의하고, 12월 10일 러시아를 포함한 OPEC 비회원 산유국들도 동일 기간의 감산에 합의하였음.
 - 감산 합의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1,005.8만 배럴로 종전 대비 48.6만 배럴 감소함.
 - 이후 국제유가는 감산에 힘입어 상승하였으나 당초 산유국들이 기대한 60달러대 중반에 여전히 미달하고 있음. 아울러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지출 축소로 투자 및 소비가 위축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17년 0%대로 더욱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산유국들이 11월 30일 개최된 회의에서 감산을 2018년 말까지 재연장하는 합의에 성공하였음에도 원유 수요 증가세 둔화 가능성,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생산량 증대 등의 변수가 존재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2018년에도 1%대 초반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유가 여파로 4년 연속 재정수지 적자 기록 추정

- 재정수지는 2014년에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영 석유기업의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급감함에 따라 GDP 대비 -3.4%로 적자 전환되었음. 2015년에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세수 감소, 산업다각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예멘 내전 개입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5.8%로 급등하였음.
- 이 같은 상황은 2016년에도 계속되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전년대비 15.6% 축소하였음에도 석유 부문의 세수 감소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6년 만의 최고이자 G20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17.2%로 더욱 증가하였음.
- 다만, 2017년에는 감산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영 석유기업의 수익성 개선, 정부의 자본지출(capital spending) 축소 등의 노력으로 동 비중이 -8%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수입 목표를 전년도 예산안 대비 31% 증가시키고, 재정지출 목표치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전년도 예산안 대비 8% 증가시켜 2015년 이래 3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8년에는 부가가치세 도입 등 비석유 부문 중심의 세수 증대 노력이 계속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7%대 초반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20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를 통한 자본지출 축소(200억 달러 이상 감축 계획),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비석유 부문으로의 경제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유가가 현저한 상승세를 지속하지 않는 한 균형재정 달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MENAP(October 2017)은 사우디아라비아의 2018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배럴당 평균 국제유가 수준을 70.0달러로 전망하였음.
- 보조금 지급 축소, 공공 부문의 급여 삭감 등 정부지출의 감축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상황으로 미루어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며, 공공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IMF World Economic Outlook(October 2017)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부채는 2017년 1,154억 달러(4,327억 리얄, GDP의 17.0%)로 추정되며, 이는 2014년 말 118억 달러(443억 리얄, GDP의 1.6%)의 8.8배에 달하는 수준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예산 부족분을 국채 발행과 외환보유고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공공부채 규모는 2020년에 GDP의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도입

-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들은 2016년 5월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12월 GCC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통합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2017년 1월 동 협정의 각료회의 승인 및 비준, 동년 7~8월 부가가치세법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쳤음.
- 2017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관보(官報)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GCC 6개국은 5%의 공통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게 됨. 다만, 통합협정 비준 및 관련 법령 제정을 마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만이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기업은 연 매출 375천 리얄(10만 달러) 이상의 민간기업이며, 주요 과세품목은 식음료, 국내운송, 개인 의료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및 임대(호텔 포함), 주거용 부동산 매매, 사립학교 학비, 석유·가스제품의 국내 판매, 순도 99% 이하의 금·은·백금의 매매, 유무선 통신 및 전자서비스, 은행 수수료 및 보험상품 등임.

- IMF는 부가가치세율이 글로벌 평균보다 낮고 일괄과세로 가격왜곡 효과가 적어 기업과 개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함.
 - 다만, 도입 첫 해인 2018년에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가계소비자는 생필품, 석유제품, 통신비, 사립학교 학비 가격 인상으로 체감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은 6월 11일부터 “국민 건강에 유해한 식음료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전격 시행하여, 담배제품과 에너지음료에 대해 소비자가의 100%를, 탄산음료에 대해 소비자가의 5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조금 삭감 등으로 전년대비 약간 상승 추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2~3%대의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유지해 왔음.
-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2.2%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초부터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한 보조금 삭감으로 휘발유 가격,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이 연이어 인상되면서 2016년 3.5%로 상승하였음.
-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에는 주로 식료품 등 비(非)에너지 부문의 가격 하락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연료·전력 보조금 삭감, 2017년 하반기에 도입된 개별소비세의 물가상승 효과 발현 및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5%대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3.7	4.1	1.8	0.1	1.1
재정수지 / GDP	-3.4	-15.8	-16.7	-8.6	-7.2
소비자물가상승률	2.7	2.2	3.5	-0.2	5.0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및 대외 원유수요 변동에 취약

-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석유 부문은 201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의 40% 이상, 재정수입의 80% 이상 및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공 부문의 과도한 비중과 심각한 비효율성으로 구조적 취약성 가중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국영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민간 부문의 발전이 부진하며, 따라서 총고용에서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임.
- 다국적 컨설팅 기업 McKinsey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취업 인구의 약 70%가 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근무 중임.
- 이처럼 고용에서의 비중이 높음에도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2016년 10월 Khalid bin Abdullah al-Araj 행정장관은 자국 공무원의 대다수가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나. 성장 잠재력

□ 원유매장량 세계 2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6위의 에너지자원 부국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5.6%에 달하는 2,665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4.5%에 해당하는 8.4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2016년 일일 평균 에너지자원 생산량은 원유 1,234.9만 배럴(전 세계 생산량의 13.4%, 세계 2위) 및 천연가스 1,094억 m³(전 세계 생산량의 3.1%, 세계 8위)로 집계됨.
- 아올러, 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 등 비석유 광물자원의 매장량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석유자원의 개발에 국력이 집중되어 여전히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표 2 >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일 평균 원유 ·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원유(만 배럴)	1,163.5	1,139.3	1,150.5	1,198.6	1,234.9
천연가스(억 m ³)	993	1,000	1,024	1,045	1,094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다. 정책성과

□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다변화 추진의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5년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식 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장기전략 2024(Long-Term Strategy 2024)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5개년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음. 아올러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국영기업 및 정부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의 높은 석유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의 정책성과는 당초 목표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2017.3.22자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 한 Fitch는 “정부의 경제다양화 개혁 의지가 미미한 점”을 신용등급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였음.

□ 자국민 우선고용 정책(Saudization) 강화의 부작용 우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민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자국민 우선고용 정책(Saudization, 현지어로는 Nitaqat)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2016년 외국인 취업비자 신청 거부비율은 62.8%를 기록하였음.

- Nitaqat의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60개 이상의 산업 부문에 대하여 최고 수준인 Platinum 등급과 낮은 수준인 Lower Green 등급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 건설기업의 경우, 직원 수 500명 이상 2,999명 이하 기업은 Platinum 등급을 받기 위한 자국민 고용비율이 '16% 이상'에서 100%로 대폭 강화되며, Lower Green 등급의 자국민 고용비율도 6%에서 10%로 강화됨.
 - 소매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Platinum 등급을 받기 위한 자국민 고용비율이 '35% 이상'에서 100%로 대폭 강화되며, Lower Green 등급의 자국민 고용비율도 24%에서 35%로 강화됨.
-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국민이 기피하는 저임금의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수 축소가 자국민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임. 또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수 축소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민간 부문 육성과 산업다각화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적 개발계획 “Saudi Vision 2030”의 추진

- Salman 국왕의 장남이자 현재 실질적인 국왕으로 간주되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당시는 부왕세자)는 2016년 4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을 위한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
- “Saudi Vision 2030”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등의 3대 영역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임.
- 이중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는 (1) 기회에 대한 보상(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육성), (2) 장기적 투자(민간·신성장 부문의 육성), (3) 사업환경 개선(경쟁력 제고), (4) 지정학적 장점 활용 극대화(무역·투자 증진)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실업률 하락(11.6% → 7%),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제고(20% → 35%), 총고용의 여성 비중 제고(22% → 30%), 석유·가스 부문 국산화율 제고(40% → 75%), 공공투자기금(PIF)의 자산규모 증대(6,000억 리얄 → 7조 리얄) 등을 추진함.

- 또한 2030년까지 GDP 대비 FDI 비중 제고(현재 3.8% → 5.7%), 민간 부문의 GDP 기여도 제고(현재 40% → 65%), 비석유 부문 GDP 대비 비석유 부문 수출 비중의 제고(현재 16% → 50%) 등도 추진함.

□ “Saudi Vision 2030”의 경제 부문 핵심은 Aramco의 개혁과 비석유 부문의 육성 및 세입 증대

○ 경제 부문에서 “Saudi Vision 2030”의 핵심은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조직과 역할의 전면적인 개편 및 기업공개(IPO)로 마련한 재원을 투자하여 비석유 수입원을 창출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Aramco 주식(5% 미만, 본사 및 자회사 포함)을 상장하고, 주식 매각자금 및 국가소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PIF로 이전하여 PIF의 자산규모(현재 약 1,600억 달러)를 약 2조 달러로 늘림으로써 투자 수익을 대폭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 또한 Aramco를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현재 5% 수준인 PIF의 해외투자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임.
- 아울러 PIF의 국내외 투자 수익, 재정개혁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비석유 부문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추진 중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3.27자 발표된 칙령(Royal Decree)을 통해 석유회사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의 일괄 85%에서 기업의 자본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최고 50%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음.¹⁾

- Aramco는 동 조치로 법인세율이 85%에서 50%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300% 이상 상승하고, 잠재적 기업 가치가 최대 1.5조 달러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개혁을 추진할 정부 공무원들의 역량 부족, 보조금에 의존적인 국민들의 급격한 개혁에 대한 반발, 기존의 보수 이슬람적 정치·사회 질서와의 충돌 등이 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1) 자본금 600억 달러 미만 기업 : 85% / 자본금 600억 달러 이상 800억 달러 미만 기업 : 75%
 자본금 800억 달러 이상 1,000억 달러 미만 기업 : 65% / 자본금 1,000억 달러 이상 기업 : 50%

□ 국가개혁 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의 추진

- 2016년 6월 발표된 국가개혁 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 약칭 NTP 2020)은 “Saudi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포함 24개 기관에서 총 178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71개 지표 및 346개 실행목표를 각각 설정하였음.
-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개혁과제(Initiatives)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정부재정 분야 : 비정부 부문의 세입 확대 및 신규 고용 창출, 국가자산 규모 확대, 간접세 도입 및 보조금 삭감, 공공 부문 인건비 삭감 등
 - ② 에너지 분야 : 천연가스 증산, 원유 정제용량 증대, 재생에너지 개발
 - ③ 산업 분야 : 복합 해양산업단지 건설, 비석유 부문 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증대, 성지순례객 유치 증대

□ 재정균형 프로그램(Financial Balancing Program 2020)의 추진

- NTP 2020 발표로부터 6개월 후인 2016년 12월 발표된 재정균형 프로그램(Financial Balancing Program 2020, 약칭 FBP 2020)은 저유가 기조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재정수입 확대 및 지출 효율성 제고로 2020년까지 국가재정 균형을 달성(또는 재정흑자 시현)한다는 목표를 추진함.
- FBP 2020의 세부 추진방안은 ①비석유 부문 재정수입 확대, ②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③공공요금 가격체계 개편, ④보조금 제도 개편, ⑤민간경제 활성화 지원 등임.

□ “Saudi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한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 선정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발이사회(CEDA)는 2017.4.30자로 “Saudi Vision 2030”의 실현을 위한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을 선정, 발표하였음. 동 프로그램은 NTP 2020 및 FBP 2020의 연장선에서 선정된 것임.
- 10대 프로그램은 ①주택, ②성지 순례객 지원, ③생활방식 개선, ④국가정체성 강화, ⑤기업의 국가 리더십 지원, ⑥국가산업과 물류 서비스 개발, ⑦공공투자기금(PIF) 역할 강화, ⑧전략적 파트너십, ⑨ 금융 부문 개발, ⑩민영화로 구성됨.

3. 대외거래

□ 감산 결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2017년 경상수지는 흑자 전환 추정

- 석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를 지속해 오던 경상수지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 추세로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급감하며 상품수지 흑자가 계속 축소됨에 따라 2015년 GDP 대비 -8.7%의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에도 GDP 대비 -4.3%의 적자를 시현하였음.
- 2017년에는 감산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수출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2%대 중반 수준의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IMF는 2018년에는 상품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0.4%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저유가의 여파로 외환보유액 감소 및 외채잔액 증가 추세 지속

- 외환보유액은 2014년까지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감소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면서 외환보유액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환보유액(억 달러) : 7,189('14) → 6,040('15) → 5,261('16) → 4,780('17^e)

- 외자도입을 동반한 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2016년 10월(175억 달러) 및 2017년 9월(125억 달러)의 미 달러 표시 국채 발행 등으로 인해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17년 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9%대 중·후반, D.S.R.은 3%대 중·후반으로 각각 전망되어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총외채잔액(억 달러) : 888('14) → 1,010('15) → 1,329('16) → 1,552('17^e)

- SWF Institute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SAMA Foreign Holdings와 공공투자기금(PIF)은 2017년 6월말 기준 각각 5,159억 달러(세계 5위)와 2,239억 달러(세계 11위)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으로, 이는 대외지급능력 유지의 안전판으로 작용함.
- 다만, SAMA Foreign Holdings의 자산규모는 저유가 추세에 따른 원유 수출 수입(收入)의 감소로 2015년 6월 말 6,856억 달러에서 2017년 6월 말 5,159억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9월 제2차 미 달러화 표시 국채(125억 달러) 발행에 성공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저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되자, 외환보유고 확보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016년 10월 20일 사상 최초로 175억 달러 규모의 국채(미 달러화 표시)를 발행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금년 9월 27일 125억 달러 규모의 2차 미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였음. 만기별 발행액은 5년 만기 30억 달러, 10년 만기 50억 달러 및 30년 만기 45억 달러임.
- 2차 발행에서도 국제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입찰금액이 발행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40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7년 4~11월 6차례에 걸쳐 이슬람채권(sukuk) 발행, 2020년까지 매년 국채 발행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9월의 2차 국채 발행에 앞서 4월 13일 90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화 표시 이슬람채권(sukuk)²⁾을 최초로 발행하였음.
- 이어 7월 24일에는 170억 리얄(45.3억 달러) 규모의 리얄화 표시 이슬람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10월 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300억 리얄(80.1억 달러) 규모의 리얄화 표시 이슬람채권을 추가 발행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1월 28일 전월의 리얄화 표시 이슬람채권 4차 발행분의 추가 모집을 실시하여, 66.8억 리얄(약 17.8억 달러) 규모의 리얄화 표시 이슬람채권을 추가 발행했다고 발표하였음.

2)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고안된 채권 방식으로, 채권 발행으로 모집된 자금을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평균 1,633억 리얄(약 435.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계속 발행할 계획임. 이로 인해 공공부채 규모는 2020년에 GDP의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표 3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73,758	-56,724	-27,551	17,508	9,318
경 상 수 지 / G D P	9.8	-8.7	-4.3	2.5	1.3
상 품 수 지	183,995	44,265	55,764	103,644	103,077
수 출	342,457	203,537	183,607	234,044	238,693
수 입	158,462	159,271	127,843	130,400	135,616
외 환 보 유 액	718,921	603,986	526,064	478,034	454,110
총 외 채 잔 액	88,800	101,000	132,896	155,152	177,062
총 외 채 잔 액 / G D P	11.8	15.4	20.6	21.9	24.5
D S R	1.6	2.2	3.0	3.6	5.1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Salman 국왕, 2015년 즉위 후 왕위계승자 전격 교체

- 2015년 1월 제6대 Abdullah 국왕의 사망에 따라 제7대 국왕으로 즉위한 Salman 국왕은 즉위 연설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즉위 당시 국정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의회와 정당이 없는 대신, 국왕이 임명하는 자문위원회(150명)가 운영됨. 핵심 부처의 장관직은 대부분 왕실의 왕자들이 맡으며 4년마다 재·연임하는 형식이나, 내각 교체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즉위 3개월 후인 2015년 4월 29일 칙령을 내려 자신의 이복동생이자 왕위 계승서열 제1위인 Muqrin bin Abdulaziz 왕세제(王世弟)를 폐위하고, 대신 조카인 Muhammad bin Nayef 왕자(제1부총리 겸 내무장관)를 왕세자로 책봉하였음.

- 동시에 Salman 국왕은 자신의 장남인 Muhammad bin Salman 왕자를 부왕세자(왕위 계승서열 제2위)로 책봉하고 제2부총리 겸 국방장관에 임명하여, 당시 만 29세의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전 세계에서 최연소 국방장관이 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형제 상속을 원칙으로 하여, 제2대 Saud 국왕 부터 현 Salman 국왕까지 모두 초대 Abdulaziz 국왕의 아들들이었음.
- 따라서 Salman 국왕의 왕위계승자 교체(조카를 왕세자, 장남을 부왕세자로 책봉)는 형제 상속의 원칙을 폐지한 것으로, 왕실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짐.

□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Saudi Vision 2030” 발표 후 석유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을 전격 교체하며 친위 내각의 구축 추진

-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2016년 4월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인 자신의 주도하에 수립된 “Saudi Vision 2030” 발표 후 1995년부터 재직해온 Ali al-Naimi 석유부 장관을 Aramco 회장인 Khalid al-Falih로 교체하고, 석유부의 명칭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Wealth)로 변경하였음.
-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전통적으로 비(非)왕족 출신의 전문 관료들이 역임해온 석유정책 담당 장관직에 자신의 최측근이자 왕족 출신인 al-Falih를 임명하여, 전권 장악을 위해 석유 부문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 또한 Muhammad bin Salman 왕자는 중앙은행인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의 총재도 Fahad al-Mubarak에서 前 SAMA 연구 및 국제문제 부총재인 Ahmed al-Kholifey로 교체하는 등 친위 내각 구축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음.

□ Muhammad bin Salman 왕자, 2017년 6월 왕세자로 책봉된 후 과격한 전권 장악 추진으로 왕실 내 갈등 증폭 및 정치적 불안 고조

- Salman 국왕은 왕위계승자 교체 2년 만인 2017년 6월 21일 칙령을 내려 Muhammad bin Nayef 왕세자를 전격 폐위하는 한편,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였음.

○ 이 과정에서 Muhammad bin Salman 왕자가 Muhammad bin Nayef 왕자를 감금하고 물러날 것을 강요하였으며, Muhammad bin Nayef 왕자는 폐위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배제된 동시에 가족과 함께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Muhammad bin Salman 왕자가 Salman 국왕을 등에 업고 강압으로 Muhammad bin Nayef 왕자를 물러나게 한 사실이 알려져 왕실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적 불안이 고조됨. 아울러 Salman 국왕이 조만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에게 양위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됨.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 주도의 반부패위원회, 11월 4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11명의 왕자와 전·현직 장관 등을 체포·연금**

○ Salman 국왕은 1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의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반부패위원회(Anti-Corruption Initiative)를 창설하고,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음. 동 위원회는 부패 혐의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음.

○ 동 발표로부터 불과 수 시간 뒤에 반부패위원회는 최소 11명의 왕자들은 물론 전·현직 장관 및 고위 관료, 유력 사업가 등 200여명을 체포하여 수도 Riyadh의 Ritz Carlton 호텔에 연금하였음.

○ 연금된 왕자들 중에는 억만장자이자 국제투자자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Al-Waleed bin Talal 왕자, 왕실 경호를 담당하는 국가수비대(National Guards) 장관이자 사우디 제3군단 사령관인 Mutaib bin Abdullah 왕자, 그의 동생이자 前Riyadh 주지사인 Turki bin Abdullah 왕자 등이 포함되었음.

□ **대규모 숙청의 실제 목적은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왕위계승을 위한 경쟁자 제거라는 관측이 지배적**

○ 체포·연금된 Mutaib bin Abdullah 왕자와 Turki bin Abdullah 왕자 형제는 선왕인 Abdullah 국왕의 아들들로, 특히 Mutaib bin Abdullah 왕자는 앞서 왕세자위에서 폐위되고 가택연금된 Muhammad bin Nayef 왕자와 더불어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왕위계승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인물임.

- Salman 국왕은 Mutaib bin Abdullah 왕자 체포 수 시간 전에 그를 사우디 제3군단 사령관직에서 해임하였는데, 제3군단은 그동안 제1/2군단과 달리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이번의 체포·연금은 실제로는 정치적 숙청이며, 진정한 목적은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자신의 왕위계승에 유력한 경쟁자인 왕자들과 그 동조자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 이미 국방장관(상비군 통할)을 겸하고 있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내무장관(경찰·정보조직 통할)인 Muhammad bin Nayef 왕자에 이어 국가수비대 장관(정예군 통할)인 Mutaib bin Abdullah 왕자까지 숙청하여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보 관련 전권을 장악함.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11월 23일 New York Times의 칼럼니스트 Thomas Friedman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번 숙청에 대해 “2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부패척결 작업의 결과물”이라 주장하고 “구금된 인사 95%가 부패 혐의를 인정하고 재산 환수에 동의하였으며, 그들이 부정축재로 만든 재산(최소 1,000억 달러)를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 Mutaib bin Abdullah 왕자는 최근 10억 달러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수용 가능한 타협안’에 합의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아라비아의 Sheikh Saud al-Mujib 검찰총장은 12월 5일 성명을 발표, 반부패위원회가 현재까지 부패 혐의 관련 계좌를 동결한 왕족·기업인·정치인은 총 376명으로 이중 32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159명이 아직 구금 중이라고 밝혔음.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 과감한 개혁정책 추진과 더불어 향후에도 왕실 내 숙청 계속 전망**
 - 현재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개혁은 보수 이슬람 교리에 기반한 엄격한 신정일치(神政一致), 왕실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심하게 편중된 부(富)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 염증과 반감을 지닌 대부분의 젊은층으로부터는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개혁 추진은 왕실 내 연장자들과 보수 이슬람 성직자들 및 기성세대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왕위계승 후에도 자신에게 도전하거나 반기를 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왕자들 및 그 지지세력을 제거하는 숙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왕실 내 갈등과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실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

- EIU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업률을 2017년 11~12%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20%로 알려졌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부터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Saudization) 정책을 시행한 이래 계속 강화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이 높고 민간 기업들이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숙련도는 더 높은 외국 인력을 선호함에 따라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공공 부문에의 과도한 고용 집중 현상으로 민간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점도 고용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시아파에 대한 차별, 청년층의 왕실에 대한 불만 등도 사회불안 요인

- 전 인구의 약 15%로 추산되는 시아파 신도들(Shias)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의 연계 의혹으로 정치·외교 분야의 공직 참여, 여행,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의 차별을 겪고 있음.
- 근래 이슬람 근본주의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 부패 만연 등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나, 최근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비판 제기

-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 절대군주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항의는 곧 이슬람교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왕 및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알려짐.
- 아울러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경제적 유화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여전히 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 그러나 2015년 9월 24일 이슬람 제1의 성지인 메카 외곽에서 열린 성지 순례(하지) 행사에 사람이 몰려 약 1,450명이 압사하는 대참사 발생 후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후속책의 부재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주도에 의한 개혁정책 추진으로 남녀 차별 문제는 개선을 거듭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Abdullah 국왕 재위 당시부터 온건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2015년에는 처음으로 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허용하는 등 최근 수년 간 서서히 여성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확대하였음.
 -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이 11월 1일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하였음에도 조사대상 144개국 중 138위로 여전히 최하위권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추진 중인 개혁의 일환으로 9월 26일 칙령을 통해 그동안 법으로 금지해온 여성의 자동차 운전을 2018년 6월 24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음.
- 역시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주도로 2017년 7월 설립된 엔터테인먼트청(GEA)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음악가 Yani의 콘서트를 주최하면서 공연장 내에 남성 관객과 여성 관객을 모두 입장시키는 파격을 단행하였음.

- 다만,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운동이 이슬람 고위 성직자 등 기존의 보수층은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에 경도된 일부 청년층으로부터 반발을 초래하여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3. 국제관계

□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대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뿌리 깊은 반미감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임. 미국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등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보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이란 핵협상의 파기를 공공연히 주장해온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공유하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양국 정부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세계의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지, 걸프전 당시 미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등의 이유로 깊은 반미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정책과 국민감정 간에는 괴리가 있음.

- 걸프전 당시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자 이슬람 제1의 성지 메카와 제2의 성지 메디나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이교도 군대가 들어왔다 하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반미감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숙적 이란과는 2016년 1월 단교 후 예멘 내전, 시리아 내전 등에서 갈등을 거듭하며 관계 악화 일로

-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팔레비 왕가 축출 이후 오랜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2005년 이란에서 강경보수와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음.

-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절대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이자 공화국인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및 공화주의 세력이 걸프 지역에서 확대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
- 2016년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 주도 혐의로 자국의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하자 이에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습격하고, 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성지순례를 제외한 외교·무역관계 단절을 선언하였음.
- 이후 시리아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수니파)을, 이란은 정부(시아파)를 후원하는 반면,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수니파)를, 이란은 반군(시아파)을 후원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특히 사실상의 국왕으로 간주되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이란과의 대화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철저한 反이란 성향으로 알려져, 양국 관계에 단기간 내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 레바논 총리의 들연한 사임 발표 및 번복으로 이란과의 관계 악화, 역내 불안정 고조

- 레바논의 Saad al-Hariri 총리는 1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이튿날인 11월 4일 “이란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Hezbollah)의 위협으로 레바논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알리고자” 총리직을 사퇴한다고 전격 발표하였음.
- 이에 이란과 헤즈볼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al-Hariri 총리를 사실상 납치·감금하고 사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후 귀국을 계속 미루다 11월 21일 귀국한 al-Hariri 총리는 11월 25일 성명을 통해 사임을 유보하나, 헤즈볼라의 악영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헤즈볼라 견제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음.
- 레바논 총리의 사임 발표 및 번복 파동의 배후에는 레바논에 대한 이란과 헤즈볼라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이로 인해 레바논이 예멘에 이어 양국 간의 대리전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

□ 카타르에 대한 단교 및 경제봉쇄 주도로 역내 갈등 고조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5월 23일의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계기로 6월 5일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음.
- 이어 4개국은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6월 22일 카타르에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봉쇄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였음. 동 조건은 카타르의 주권을 다양한 방향에서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동 사태의 이면에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의 패권을 확립하고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저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시적 외교전략이 존재하고 있음. 카타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의 핵심은 Al-Jazeera의 폐쇄, 이란과의 관계 격하, 무슬림형제단의 추방 등임.³⁾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카타르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 카타르의 위성 방송사 Al-Jazeera를 통해 자국 내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요구와 개혁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함.
- 또한 2016년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립적, 다원적 외교노선을 견지하는 카타르가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에 대해 과격한 수준의 내정간섭적 요구를 계속하고 이를 카타르가 거부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쿠웨이트와 오만이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진전이 없음.

□ 예멘 내전에 대한 개입은 민간인 희생을 양산하며 국제적인 비판 초래

- 인접국인 예멘에서 Abdrabbuh Mansur Hadi 대통령이 이끄는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반군 간의 내전이 발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정부를 돕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GCC 국가들과 연합군을 구성, 국경 지대에서의 지상군 파병 및 폭격기를 동원하여 예멘을 공습하였음.

3)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을 추구하여 중동의 왕정 국가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나,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과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와 아덴 만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인 예멘을 시아파 반군이 지배할 경우, 시아파의 맹주인 숙적 이란에 의해 시리아-레바논-이란-예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가 형성되어 자국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 이후 현재까지 예멘에서 1만 명 이상이 폭격과 교전으로 사망하고 3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하며, 콜레라 창궐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
 - 2017년 11월 말 현재 예멘 인구의 70%인 약 2,000만 명이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 700만 명 이상은 전적으로 UN 구호 식량에 의지하여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GCC 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며 이의 차단을 명분으로 11월 6일 예멘의 모든 항구와 공항을 봉쇄, 식량 및 의약품 부족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음.
 - UN의 거듭된 요구로 예멘의 수도 Sanaa의 공항 및 Hodeidah 항구와 Salef 항구에 대한 봉쇄는 11월 24일 해제되었으나, 반군이 장악한 지역의 주요 항구들에 대해서는 11월 말 현재 봉쇄가 계속되고 있음.
 - 현재 32세의 젊은이인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경험 부족, 충동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예멘 내전에의 과도한 개입을 단행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국내외적 입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2월 4일 예멘의 Saleh 前대통령 피살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전에 더욱 깊이 개입될 우려 고조
- 예멘의 Ali Abdullah Saleh 前대통령이 12월 4일 Sanaa에서 후티 반군에게 살해됨에 따라 내전의 종식을 바라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내전에 더욱 깊이 개입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됨.
 - 34년 간의 독재 끝에 2012년 2월 권좌에서 축출된 Saleh 前대통령은 내전이 발발하자 대립관계였던 후티 반군과 협력하여 Hadi 행정부를 공격해 오다 최근 후티 반군과 결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내전 종식을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이던 중 후티 반군에게 살해당하였음.

- 예멘 내전 개입으로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자 Saleh 前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한 내전 종식을 추진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Saleh 前대통령의 피살로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내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 능력 및 태도 양호

- 2017년 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과 D.S.R은 각각 10% 미만과 4%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등 외채상환 능력 및 태도가 여전히 양호함.
- 다만, 2017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동국 총외채규모의 약 3.1배에 달하는 4,780.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인해 최근 수년 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말 외환보유액 추이(억 달러) : 6,039.9 ('15년, 16.0% 감소) → 5,260.6 ('16년, 12.9% 감소) → 4,780.3 ('17년^e, 9.1% 감소 전망)

2. 국제시장평가

□ 저유가로 인한 거시경제지표 악화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2016~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 최근 저유가로 경제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2016~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 : Aa3(2016.3월) → A1(2016.5/10월)
 - Fitch : AA(2015.8월) → AA-(2016.4월) → A+(2017.3월)

< 표 4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2등급 (2017. 1.)	2등급 (2016. 1.)
Moody's	A1 (2016.10.)	A1 (2016. 5.)
Fitch	A+ (2017. 3.)	AA- (2016. 4.)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 10. 16.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 협정:** 문화협력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항공협정(1984), 항공 운수·소득면제협정(1990), 투자협력협정(2002), 투자보호협정(2003),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200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2012), 국방협력협정(2014)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수입상대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수입상대국으로, 양국간 교역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 저유가 지속으로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액 자체가 감소하고 여타 원유생 산국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교역규모는 최근 3년 간 감소를 거듭하였음.
 - 교역규모 추이(억 달러) : 449.8('14년, 3.2% 감소) → 290.4('15년, 35.4% 감소) → 213.9('16년, 26.4% 감소)
 - 2016년 수출은 56.4억 달러(전년대비 40.5% 감소), 수입은 157.4억 달러(전년대비 19.5% 감소)를 기록하여 수출과 수입이 모두 위축되었음.
 - 다만, 2017.1~10월 누계는 수출 41.8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 수입 159.8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26.8% 증가)로 교역규모가 201.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16.5% 증가하였음. 수입액 증가는 지난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상승의 결과로 추정됨.

< 표 5 >

한 · 사우디아라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1~10	주요 품목
수 출	9,482	5,644	4,179	자동차, 전기기기, 건설광산기계 등
수 입	19,561	15,742	15,976	원유, 석유제품, LPG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기업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수주 감소

- 2016년 말 우리 기업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공사 수주 누계액은 1,380억 달러로,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총액(7,504.3억 달러)의 18.4%(전체 1위)를 차지하였음.
- 최근의 저유가 추세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분야인 석유 및 천연가스, 석유화학 부문의 발주 감소와 주요 발주처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일정 조정으로 이어져, 연간 수주액이 2013년 99.7억 달러에서 2014년 29.5억 달러로 급감 후 2015년 35.9억 달러, 2016년 41.6억 달러로 계속 부진함.
 - 2017년에도 1~11월 중 수주액은 11.2억 달러로 전년동기(31.2억 달러) 대비 35.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2017.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37건, 40.3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7년 6월 말 기준 신규법인 수 237건, 총투자금액 40.3억 달러이며, 2014~16년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77.2%에 달하는 등 최근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V. 종합의견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말 기준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6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부국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의 영향으로 투자 부진 등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8%대의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됨. 2018년에도 1%대의 저성장 및 GDP 대비 -7%대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이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보충을 위한 미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 외자도입을 동반한 인프라 건설 사업 등으로 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7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총외채잔액의 3배 이상 및 단기외채잔액의 9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D.S.R.도 4% 안팎을 유지하는 등 대외 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4월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을 위한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이의 실현을 위해 동년 6월 국가 개혁프로그램(NTP 2020) 및 12월 재정균형프로그램(FBP 2020)을 발표하고, 2017년 4월 10대 세부 전략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추진 중임.
- 높은 실업률과 소수 시아파의 소외에 따른 불만 등이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경제적 유화 정책 시행으로 대규모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다만, 현재 사실상의 국왕인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과격한 정치적 숙청으로 왕실 내 갈등을 고조시키고, 역내 숙적인 이란을 겨냥한 다양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가하며 국내정치적으로는 물론 역내에서도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음.
- 특히 예멘 내전 개입에 이어 카타르 단교 사태 주도, 레바논 총리 사임 발표 개입 등 이란의 고립을 목표로 역내국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간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역내 불안정의 고조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